

한형조 무문관 탐방

35

육조의 이발 ④

혜능은 638년 광동(廣東) 지방인 영남(嶺南)에서 태어났다. 속성은 노(盧)씨.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살다가 남해(南海)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모자의 장작을 패다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날 한 손님이 장작을 주문했다. 물건을 가게로 배달해 주고 돌아서 나오는데 문득 경을 읽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혜능의 마음이 문득 환해졌다. 물어 보았더니 <금강경·金剛經>이라 한다.

그 사람은 자신이 황매산에서 법을 펴고 있는 5조 홍인의 제자라고 말했다. 혜능은 당장 달려 가고 싶었지만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었다. 고민하고 있던 차에 낮모르는 한 독지가가 나서서 섣된 열냥을 생활비로 내놓았다. 노모와 작별한 혜능은 한 달이 넘는 긴 여정 끝에 황매산에 이르렀다.

5조는 대뜸 이렇게 물었다. "너는 어디 사는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왔느냐?" 혜능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영남 사람으로 신주(新州)의 백성입니다. 화상을 찾아온 것은 부처를 이루고자 해서입니다." 5조는 혜능이 심상치 않은 그릇임을 직감했다. 기쁜 마음을 감추고 이렇게 떠보았다. "영남이러면 오랑캐 아니냐. 그런데 어찌 부처가 되겠다고 나서는가." 영남



그림·이문향

원거리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의 혜능에 대해 당의 시인 왕유(王維)는 <육조혜능선사비명>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고 학도들이 마땅할 때 온데서 혜능은 묵묵히 5조의 강의를 들었다. 그는 한번도 자기의견을 말한 적이 없었다. 평소의 생활은 극히 고매한 무아의 경지였다. 자기의 깨달음에 만족하지 않고, 누더기옷을 걸치고 언제나 수행삼매로 정진했다."

그 후 어느날, 5조는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놓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늘 생사(生死)가 중대하다고 일렀다. 그런데도 하루종일 밥만 축내고 복만 바랄 뿐, 삶의 근원적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이제 각자 돌아가서 자신의 지혜의 본성을 보아 내고, 그것을 확인하는 계승 하나씩을 지어내라. 만약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자가 나타나면 5대 조사로 삼아 대대로 전해진 가사를 물려주마. 한시가 급하니 꾸물대지 말고 가서 가라. 머뭇거리며 생각을 더듬고 있어서는 소용없다. 제대로 된 그릇이라면 내가 하는 말을 당장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칼을 휘둘러 적진에 뛰어

“불성에 南-北 있겠습니까”

오조 홍인대사 영남출신 혜능의 선관 인정

은 중국문명의 중심지인 중원에서 보면 미개한 오랑캐가 사는 지방이었다. 옛부터 이들을 남만(南蠻)이라 하여 멸시했는데, 5조는 일부러 그같은 인종적 지역적 편견을 꺼내 혜능을 시험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혜능은 이렇게 응수했다. "사람이야 남과 북이 갈리겠지만 불성에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5조는 다시 한번 놀랐다. 이 젊은이와 좀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둘러 앉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참았다. "물러가서 맑은 일을 잘 하거." 5조의 이 말에도 혜능은 거침없이 대꾸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음의 지혜가 밝아 참 본성을 잃지 않는 것이 곧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무슨 일을 또 시키시려 하십니까." 여기서 혜능의 선관(禪觀)이랄까, 진리에 대한 그의 독창적인 사유를 읽을 수 있다. 5조는 이 말에 짐짓 화를 냈다. "오랑캐놈이 입이 꼬찌구나. 썩 뒷마당으로 꺼지거라." 혜능은 고향의 지사로 절 뒤의 방앗간에서 장작을 패고 절구를 찧었다.

8개월이 지난 때쯤 5조가 혜능을 찾았다. "나는 네 견해가 보통이 아닌 줄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혹 나쁜 무리가 너를 해칠까 염려하여 일부러 거리를 둔 것이다. 알고 있었느냐." "저도 그 점을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눈치 채지 않도록 계신 곳 근처에는 얼

른 짙막한 순간에도 자신의 본성과 대면한다."

사람들은 물러나와 뒷뜰에 모여 수군거렸다. "우리가 고민해 봤자 무슨 소용 있나, 수좌인 신수가 법을 이룰 것이 뻔한데, 편히 사서 풍광거닐 필요 없지." 대중들은 모두 신수를 의지하고 있었다. 신수는 그 무렵 50대 중반의 나이였다. 5년전 5조의 문하로 들어와 천명이 넘는 수행자들을 이끌고 있었다. 신수는 그들의 기대를 안고 고민에 빠졌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는 아직 자신의 본성에 대한 분명한 자각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더라도 피해야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진땀을 흘리며 계승을 한 수 지었다. 5조의 처소를 서성거리다가 다시 물러나오곤 하기를 나흘째, 열세번을 주저한 끝에 그는 차라리 계승을 복도 벽에 붙이기로 작정했다. 5조께서 지나치다 보시고 인정하는 기미가 있으면 그때 나서리라 다짐하면서, 그 계승은 이렇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 (身是菩提樹)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 (心如明鏡臺)
늘 깨끗이 털고 닦아서 (時時勤拂拭)
먼지가 달라붙지 않도록 해야지 (莫使惹塵埃)

<한글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집안에 되는 일이 없고 자꾸 힘든 일만 생기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용하다는 무당을 찾았다. 무슨 액운이라도 끼었나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신을 불러 짐을 치던 무당이 시어머니를 보고 "집안에 젊어서 죽은 여자가 있느냐"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너무도 영험하다는 표정으로 "오래전에 친정을 방문한 일이 시집살이가 힘들다며 자살한 일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무당은 그거보라는 듯이 의기양양하였다.

시어머니는 "질에서 사십구제를 지내 주었는데, 딸이 아직도 저승을 못갔습니까"하고 물었다. 그러나 무당은 그렇게 지낸 것은 소용이 없고 원혼을 다시 불러 온 곳을 흔하디 죽은 딸도 편안하고 집안도 쾌락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며느리가 "아미니! 그 천도제 제가 해주면 안될까요?"라며 "집에 가서 대상을 잡고 물을 한술 풀어 무덤에 붓고 부어버려야 하겠습니까. 죽은 귀신이 어찌 산 귀신을 괴롭히니까"라며 강하게 말했다.

순간 안색이 하얗게 변한 무당은 "이 노릇 삼십 년만에 이런 일은 처음 당합니다. 신령님조차 며느리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계시요"라며 두 사람을 찾아왔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다시는 무당 집엘 드나들지 않게 되었고 딸에 대한 애착도 끊게 되었다. 무당집에서 며느리 말이 진짜 천도제 역할이

法數로 배우는 불교

<45>

되었는지 복잡한 집안도 평온을 찾았다.

여기서 며느리의 천도대상은 시집의 죽은 딸이 아니었다. 바로 슬픔과 원한으로 자리잡혀 있는 죽은 딸에 대한 시어머니의 마음이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사십구일이 되는 날에 천도제를 지낸다. <제(齋)란 공양이라는 뜻이다. <구사론> <지정경>에 의하면

사후 49일에 불보살 초청 업보푸는 공양 산사람·죽은사람 다함께 집착심 놓아야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49일동안은 지옥의 중음신(中陰身)으로 떠돌다가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데 이때 7일마다 불보살을 초청하고 공덕을 베풀어 법문을 들려주면 그 공덕으로 좋은 몸을 받게 되거나 왕생극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산 사람에게도 공덕이 된다고 한다. 천도제의식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업보를 부처님 앞에서 함께

푸는 작업이다. 산 사람은 죽은 사람에 대한 집착을 놓고 죽은 사람은 산 사람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이 사십구제나 천도제의 목적인 것이다. 스님들이 천도제 때 읊는 경문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망자의 넋 뿐만 아니라 천도제에 참석한 유족들에게도 해당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어쩌면 일인지 불자들이 알고 있는 천도제의식은 산사람에게 풀어서 하는 식으로 생각하여 천도제의 본뜻을 지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월례행사처럼 천도제를 지내 산 사람이 망자에게 묶이는 형국을 가져 오게 하고 있다. 자신의 마음을 빼버린 사십구제나 천도제는 무의미하다. 업에 의해서 만난 부모, 자식, 형제, 친척, 친구간의 인연은 인젠가는 헤어져야 하며 남는 것이라곤 슬픔 회한 통곡뿐이다. 집착과 곁에 때문이다. 49제와 천도제는 인연의 애착심을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놓아 버리고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서 자유를 찾고자 하는데 있다.

죽은 자 자기 살고 살아있는 자 보내기 싫어 울부짖는 마음에서 인연은 고통이요 허무라는 것을 깨달아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마음과 마음끼리 얽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무엇을 내 것으로 여겨 세상에 연연하고 미련을 풀 것임을 배워 죽은 자는 자유롭게 떠나고 산 자는 미련없이 보내야 하는 것이다. 산사람 마음에서 죽은 사람의 천도가 안된다면 그 천도제는 잘못된 것이요, 죽은 사람 마음에서 생전의 인연이 천도가 안된다면 그 천도제도 미완성의 천도제이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불교와 수학

38

진리의 분별

김홍운

강단에 앉아 있는 입제에게 마곡이 물었다. "천 개의 손, 천 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의 어느 것이 정안(正眼), 즉 정면을 똑바로 보고 있는가?" 천 개의 눈과 손을 가진 관세음보살은 스스로 다죽일 일죽다(多即一 一即多)를 구별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고사리와 같은 내용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고사리의 어느 하나를 보아도 전체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또 그 부분의 한 개의 일을 때어 보아도 전체와 같은 구조이다.

수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자기닮음(Fractal)이라고 한다. "관음보살 천 개의 눈 가운데 어디가 정안이나?" 고 묻는 마곡의 질문에 답이 있을 수는 없다. 마곡도 충분히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구현되는 불법의 진수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제는 '대비천수안(大悲天手眼)의 어느 것이 정안이나'고 같은 물음을 마곡에게 반복해 던지면서 빨리 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마곡은 강단 위의 입제를 밀어내고 자신이 심조에 앉았다. 입제는 마곡에게 다가서며 '안녕하십니까'를 물었다. 마곡이 당황하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73

자 입제는 마곡을 그 자리에서 끌어 내리고 다시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다. 마곡은 아무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갔고 입제도 자리에서 내려왔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천수천안 관음의 천 개의 눈 가운데 도대체 어느 것이 진짜냐?는 물음이며, 둘째는 입제와 마곡이 차례로 두 번이나 자리바꿈을 했다는 의미이다. 강단에 있었던 사람을 끌어내리고, 아래 있던 사람이 강단에 오르고, 또 한 번 그 자리에 있는

불교 불법과 세속은 '俗佛一如'

수학 유한의 논리 무한세계로 연장

자를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이 오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빨리 교체하는 것이다.

관음보살은 수많은 눈과 손으로 중생을 대하지만 천 개의 눈 가운데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이 하나다. 입제는 '수처주입처개진(隨處作主立處皆眞)'이라 해서 있는 자리 어디에서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관음보살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계를 대하며 그 하나하나의 눈 역시 관음보살을 나타내며 그것을 통해 모든 중생에게 대자대비를 베풀고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에는 어떤 입장에 선다해도 그것은 이미 관음보살의 일부분만을 선택한 결과가 된다. 그



강단 위에서는 불법의 입장이며 그 아래서는 분법(俗)의 입장이다. 이때 마곡은 불법의 입장을 의식하지 강단 아래서는 대담할 수 없어 불가불 강단 위에 있는 입제화상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게 된다. 그러나 입제는 앞서 분법의 입장에서 당한 질문을 그대로 되풀이하여 '빨리 답하라'고 재촉한다.

분법의 말로써 불법의 진리를 말할 수 없고 불가불(俗)의 세계에 내려가야 한다. 그리하여 '안녕하십니까'를 강단 위에 앉은 마곡에게 던진다. 이들이 되풀이하여 강단을 오르고 내리고 한 것은 불법과 분법의 세계를 구별한다. 그리하여 마곡은 그 자리를 떠나고 입제 자리에서 내려온다. 불교적 진리와 분법이 항상 변갈아 갈 수 있는 속불일어(俗佛一如)의 세계를 구현한 것이다. 수학의 무한론에서는 유한의 논리를 무한세계로 연장하여 대소의 구별, 무한 세계의 계산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무한의 유한화이며 유한과 무한이 공통의 논리를 전개한다. 위 자리에 있는 무한과 아래 세계의 유한 사이에 논리의 다리를 놓은 것이다. 입제와 마곡이 번갈아 佛과 俗의 세계를 넘나들이 하고, 그것이 하나임을 '안녕하십니까?'라고 속의 물음으로 표시했다.

불법에서는 불법(正眼)과 분법(俗)의 세계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이때 입제 자신도 분법의 세계에 들어가 그에 관해 '너 자신이 대답하라'는 것이다. 속(俗)의 물음에 대한 속(俗)의 대답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붓다들이 벌이는 영혼의 축제

월계수 꽃의 냄새를 맡았는가

오쇼 라즈니쉬의 이류선사 강의 · 이경옥 옮김



아름답고 슬픈 감성의 소유자, 비범한 통찰력을 지닌 구도자 이류선사! 오쇼 라즈니쉬의 눈과 마음으로 그의 시를 듣는다.

눈물·웃음·침묵의 스승,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 그는 일본의 별난 선사 이류(一休)의 시 가운데 주옥같은 13편의 시를 선별하여 그 깊은 메시지를 쉽고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류의 시들은 진하고 깊은 인간적 삶에서 우러나온 것들로, 라즈니쉬의 깊은 각성과 사랑의 빛으로 함께 어우러져 필멸 삶이 승리는 대양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이류는 별난 선사!

1394년, 고모마스(後小松) 천황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술과 고기, 여색을 즐기는 등 무예(無修行)를 실천하며 일체의 가식과 위선을 버리고 백유(白鷺)에 비유되어 갔다. 깨달음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에 당시 타락하고 있던 일본의 선승들을 가차없이 질타하고 예도와 독살을 서슴지 않았다.

신국판 / 520면 / 값110,000원

법구경 上·下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222면 / 값16,500원

금강경

벼락처럼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들었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432면 / 값17,000원

란트라비전 I II III IV

내 영혼이 눈 뜬 최초의 창문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신국판 / 224면

부처님의유언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공파스님 역해
신국판 / 400면 / 값7,000원

판차란트라

감로수위도 같은 다섯 토막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현명하게 바꾸어 준다!

판디트 비누루 샤르마 지음 / 서수인 옮김
신국판 / 440면 / 값7,0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 남전을 아십니까?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책장을 여는 순간, 명쾌하고 진한 감동이 메마르고 지친 당신의 영혼에 단비를 내려줄 것입니다.